

시책논단

표준에 대한 몇가지 제언

인하대학교 기계공학부 산업공학전공 정수일

표준 관련 강좌 등에서 자주 인용되는 “기술과 특허의 확보는 경쟁력의 가능성을 제공할 뿐이나, 표준의 확보는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보장한다”는 표현은 표준의 중요성과 그 핵심적 역할을 대변해 주고 있다. 표준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준” 또는 “방법”이며 이는 인사회에서의 모든 업무 및 행위에 반드시 수반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이라고 하면 단순히 광공업(산업)규격, KS, ISO 9000, ISO 14000 등의 단어만을 연상하거나, 아니면 사내표준(화), 작업표준, 업무규정 등의 극히 단편적인 사항을 떠올리기 마련이며, 이나마도 품질 관련 활동이나 기법에 대해 상당히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나 가능한 일이다.

지금 전세계는 “표준전쟁”을 치루고 있다고 표현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아무리 좋은 기술, 최첨단 기술이라도 세계표준으로 채택되지 못하면 세계화추세 속에서 제 빛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강조한 표현일 것이며, 기술력이 강한 기업일수록 국제표준(화)활동에의 관심 및 참여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 WTO 협정에 대해서는 많이 거론되어 왔으나, WTO와 동시에 조인되고 표준과 깊이 연관된 TBT협정에 대한 언급은 거의 들어보기가 힘들었다. 우리의 국가표준에 대해 “JIS를 베낀 것”이라는 무시와 “KS는 국내현실을 무시한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푸념에서와 같이 완전히 상반되는 평가를 하고 있어 KS에 대한 인식의 정립도 시급한 실정이다.

최첨단분야의 신기술에 대한 2~3가지 방식 중 어느것이 표준방식으로 채택되느냐 하는 경쟁, 국민 모두의 의식주와 직결되는 계량, 품질평가 잣대로서의 계측(표준과학), 교통신호체계, 표준색 등등 표준(화)과 관련되는 부문은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하며 품질, 환경에서 출발한 국제경영시스템표준의 제정 및 인증은 안전, 금융, 식품 등으로 그 분야를 확대해 가고 있어 표준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OECD에 가입한 후 곧장 불어닥친 IMF한파를 우여곡절 끝에 극복하고 이제는 당당히 선진국대열에 참여하려는 시점에서, 작년부터 시작된 KS의 국제일치화작업 추진, 산업표준화상에 국제표준화부문상(기업체, 사업장 및 유공자) 및 그로벨 베스트 인증서 수여 등을 추가한 것은 표준화 활동의 수준향상노력을 자극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전환점에서, 국내 및 국제 표준화 활동의 수준제고를 위해 그간 필자 나름대로 생각해왔던 의견 중 세 가지만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국제표준(화)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표준이 다른 나라의 기술, 의견 등에 의해 제정된 후 이를 KS화한다면 이는 곧 다른 나라의 기술, 의견 등에 예측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국제표준(화)활동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소, 관련단체, 기업체, 개인 등 모두가 참여하여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범국가적인 차원의 예산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구언어위주의 개념으로 제정되고 있는 국제표준에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동양권 내지는 한자문화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역적인 협조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표준전담주관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국가표준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10개 부처의 장관 등으로 국가표준심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간사위원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표준에 대한 부처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협조 또한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들리고 있다. 부처·부문별 의견 및 특수성을 조정·조화시키고, 국제표준(화)활동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더욱 자신있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전담기구의 설치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담기구의 설치가 여의치 않다면 매년 2회 정도의 범한국표준포럼(가칭)이라도 개최되어 표준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셋째 관·산·학·연·전의 협력체 구성 및 활동이 진되어야 한다. 표준(화)활동 특히, 국제표준(화)활동은 관이나 기업체 또는 개인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제대로 전개할 수가 없다. 관·창기업·학·개·연·기·관·전·문·가 모두의 협력, 그것도 일시불란한 협조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인 바, 분야별 협력체의 구성과 공조가 필요할 것이다. 이들 협력활동의 구심점으로서도 전문화된 전담주관기구의 역할이 필요하거니와, 국민 모두의 협조를 얻기 위한 매스컴의 도움 및 홍보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외에도 표준학회의 설립, 새로운 교정제도(불확도 개념 등)의 홍보, 교육 등 많은 항목을 거론하고 싶으나 지면제약 관계로 생략하고자 한다. 한 국가의 기술수준은 표준(활동)의 수준과 정비례한다고 할 수 있는 바, 표준 관련 모든 전문가들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